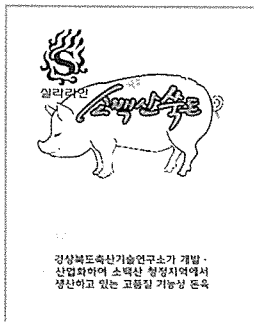


“품질 하나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을 것”

‘실라리안 소백산 썩돈’으로
 씹속 두배, 기쁨 두배

» (취재 _ 오세진)

▲ 소백산썩돈 영농조합법인 권영희회장(왼쪽 · 청호농장 대표)과
 (주)도드람 B&F 중부사업부 20판매부 김효용 지역부장.



돼지고기를 먹을 때
 면 상추 두 장에 찜장을
 듬뿍 넣어 이게 고기 맛
 인지, 찜장 맛인지 알
 수 없지만 마냥 좋다고
 꿀꺽.

이렇듯 촌스러운 기차
 의 입맛에 신선한 충격을 준 돼지고기가 나타났다.

소고기를 먹듯 기름장에 콧 찍어 먹어도 전혀 돼
 지 특유의 누런내 없이 입안 가득 육즙이 느껴지는

맛,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는 이 고기의 정체는 ‘실
 라리안 소백산 썩돈.’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김병기 박사)가 3년여의
 연구 끝에 돼지가 쉽게 섭취하면서 썩의 특이성분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개발한 사료를 먹고 자란 것이
 실라리안 소백산 썩돈이다.

‘실라리안’은 신라인의 후예라는 뜻의 경상북도
 고유브랜드.

구워놓아도 쉽게 굳지 않는 소백산 썩돈은 일반돼
 지고기에 비해 지방함량(31.9%)과 콜레스테롤 함

농 | 장 | 탐 | 방

량은 낮으나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더 높으니, 그야말로 '참살이(웰빙)' 시대에 딱 맞는 음식이다.

비법을 찾아 달려간 곳은 소백산썩든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휴천2동).

영농조합 사무실에 들어서니 우선 2년 연속 선정된 우수축산물 브랜드, 2005년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위생·안전부문', 경상북도 농정대상 '축산부문', 2006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고품질부문' 등 각종 인증서와 상장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다.

"법인이 2002년 10월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과인데요?"

소백산썩든영농조합법인의 권영흠 회장은 "중돈 통일, 사료통일, 사양통일"을 통해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더 밝아요"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권 회장은 조합 일이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성을 보이면서도, 청호농장을 운영하는 소문난 '일꾼'이다.

"어떻게 썩든 사양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2002년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소백산 썩든 기술 보급을 위해 농가들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당시 50여 농가가 와서 15 농가가 신청을 했고, 그

중 9개 농가가 모여 영농조합법인 설립했죠. 그해 1만5천두 가량 출하했고, 올해는 21농가에서 3만1천두 정도를 출하할 예정이에요."

까다로운 사양 및 출하 조건에도 선뜻 썩든 사양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처음에 '썩을 먹인 돼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50대 이상은 아마도 썩에 대한 '향수'가 있을거예요. 썩죽과 썩떡을 먹으면서도 잔병치레가 적었잖아요."

실제 썩은 동의보감에서도 비타민이 많고 알테미시닌 성분과 카렙킨 성분이 함유돼 항암효과 및 노화방지, 위장질환 예방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성인병 예방 및 저항력 증진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권 회장은 92년도에 농장을 시작, 2002년 썩든으로 전환한 뒤 사육성적 및 수입 등에서 효과를 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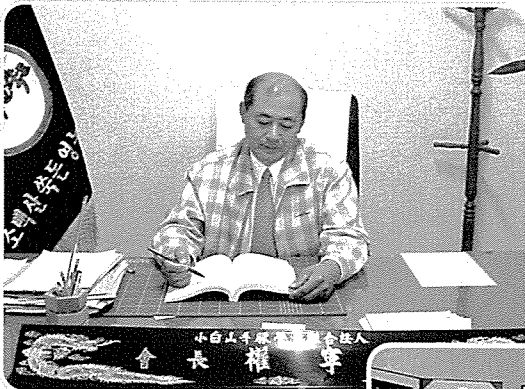
소백산썩든이 서울에 반입이 안돼 애태우고 있던 중 동아LPC(주)를 통해 지난 4월 이랜드 그룹과 납품 계약을 체결,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등의 매장으로 판매가 확대됐기 때



▲ 소백산썩든은 돼지특유의 누린내가 없으며 육즙이 풍부해 한번 맛본 사람들에게 의해 입소문이 나고 있다.



▲ 소백산썩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은 수시로 사무실에 들러 사양 정보를 공유한다.



▲ 취재 중에도 업무 처리를 잊지 않는 권 회장.



▲ 권영흠 회장과 (주)도드람 B&F 김효용 지역부장, (주)도드람사료 지역대리점 류정원 사장(왼쪽부터).

문이다.

“잘들 계셨는가?”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누가 오셨나봐요. 먼저 말씀 나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조합원인 걸요. 조합원들이 수시로 사무실에 드나들며 출하 성적 등에 대해 얘기하고 가족처럼 지내요.”

축산기술연구소, 유통업체, 사료업체, 조합원들 모여 갖는 정기모임과 월례회의 외에도 수시로 사양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지 체크하고 정보를 교류하니 좋은 품질은 보장된 듯 싶었다.

실제 소백산 썩돈 사육농가 중 사양 성적이 전국 1·2위를 차지하는 곳도 있으며, 전체 A·B등급 출현율은 82%에 이르는 등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찾아온 조합원은 장수농장 김 균 대표.

김 대표는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그저 시골 축산인들이 모여 회비를 조금씩내 사무실을 운영하며 순수하게 고기 질 향상만을 위해 머리 맞대고 있죠. 기업이 육성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자금 동원력도 약하고, 사업을 확장하려 해도 겁나지만 소비자들이 알아줄 날을 기다리며 한 마리 한 마리에 최선을 다



▲ 벽면을 가득채운 각종 인증서와 상장.

해요”라며 진심을 전했다.

이와함께 “축사에 건폐율을 적용하니 밀집사육을 할 수 밖에 없고 질병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며

“원활한 축사부지 확보 등을 위해 축사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자, 그럼 썩돈 구경하러 갈까요?”

권 회장과 함께 ‘청호농장’에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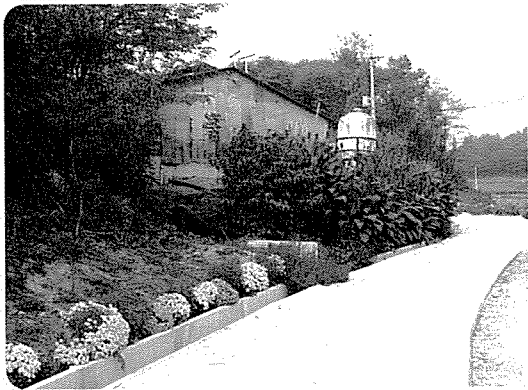
1600여평의 대지에 잘 닦여진 입구부터 알록달록 만발한 꽃들이며 곳곳에 열려있는 호박 등이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240여평의 돈사에는 포유자돈 150두, 이유자돈 250두, 모돈 100두, 육성돈 250두, 비육돈 350두 등 1200두가 소백산 썩돈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몇 년 째 돼지폐사율이 높아 농장에서 고민이 많은데 좀 어떠세요?”

“우리 농장을 포함해 경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질병피해가 적은 편이에요. 청정지역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에 이날 함께 동행한 (주)도드람 B&F 중부 사업부 20판매본부의 김효용 지역부장과 (주)도드



▲ 청호농장 진입로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있어 친근감을 준다.

람사료 지역대리점 류정원 사장이 한 마디 거든다.

“물론 자연환경도 좋지만 농장을 일꾼들에게 맡기지 않고 새벽이고 밤이고 틈나면 나와 일일이 신경 쓰시니 성적이 좋을 수밖에요. ‘농장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도드람 B&F는 축사료를 일괄적으로 제조·공급하며 사양 교육·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권 회장에게 경영 노하우를 물었다.

“농장 관리는 특별한 것 없어요. 그저 ‘기본’에 충실하면 되지요. 각종 백신 프로그램을 시기 맞춰 시행하고 급수기·급이기 관리 철저히 해 주니 별 탈 없던데요.”

깨끗한 바닥, 적절한 온도와 습도, 통풍...또 어떤 것이 비법일까?

돈사의 이런저런 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권 회장은 길지 않은 시간에도 병든 돼지를 한 눈에 알아보고 사료와 물 등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워주는 등 ‘눈썰미’가 대단했다.

“여기 호박 좋은 것 따냈는데 가지고 가요.”

권 회장은 (주)도드람 가족들에게 호박을 건네고 안부를 묻느라 분주하고, (주)도드람 직원들은 돈사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열린 마음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또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권 회장은 (주)도드람 사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품질, 가격 모든 면에서 만족해요. 축사료 급여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돈과 모돈에게도 적절한 도드람 사료를 급여하죠. 농장도 기업이에요. 이윤이 나지 않으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합 차원에서 바라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축산물 브랜드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사육두수가 많아져야 해요. 대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돼 부담도 있지만 최고의 품질만큼 2008년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상 받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고기가 좋다고 인정받는 것이 조합의 목표이자 개인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돈사 너머로 펼쳐진 산과 들이며 정성스레 가꾼 돈사 주변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발걸음 떼기가 쉽지 않았던 곳.

그곳에서 자라는 쏙돈들이 農心의 꿈과 함께 ‘쏙쏙’ 자라나 주기를 기대한다. ㉔



▲ “우리가 소백산 쏙돈이에요”